

회원들의 권익이 최우선



▲ 정준규 지회장

- 198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축산과 졸
- 2001-05 광주전남양계축협 감사
- 2001-05 (사)대한양계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상무이사
- 2003-05 한국양계농협 이사
- 2008-현재 (사)대한양계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 2005 농림부부장관상 표창

본 고는 금년 3월부터 (사)대한양계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을 맡아 협회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뛰고 있는 정준규 지회장을 만나 광주전남지역의 양계현황과 지회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양계인의 대변자로

정준규 지회장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한 축산학도로 축산사랑이 남다르다. 특히 양계업은 지난 1991년 양계업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17년 동안 나주시에서 채란업(현 규모 45,000수)을 경영해 오면서 농가들의 고충을 함께 겪어오고 있다. 2001년부터는 축협감사, 양계협회 이사 등을 맡아 농가들을 대변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는 양계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가 하면, 각 지부장들과의 회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정 지회장은 전남도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남축산단체협의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농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 정 지회장은 앞으로 전남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축산과 연계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 축사

현대화시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축분발효 퇴비화 시설 등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전남도 축정과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남도청에서도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농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정준규 지회장은 현재 계란과 닭고기의 유통상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 양계산업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지역은 이렇다 할 계란유통센터는 물론 도계장과 가공공장이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준규 지회장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 양계업 활성화 차원에서 전남도청, 농협 등과 연계하여 계란유통센터 설립은 물론 전남지역 자체 도계장 및 가공공장의 건립을 최대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계란집하장과 관련해 현재 목포에 집하시설이 있지만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충분히 수용하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계란유통센터 도입은 큰 과제로 다가서 있으며, 도계장 및 계육 가공공장은 현재 농협 목우촌과의 수평계열화를 검토 중이다. 전남 육계 농가들은 생산자와 생산자단체가 주도해 가는 수평계열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업체와도 지속적인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I 예방과 양계산물 홍보

정준규 지회장은 금년 고병원성 AI가 전남지역에도 엄습을 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설이 안 좋은 무허가 축사 사육을 금지하는 법등을 마련하



▲ 박준영 도지사(테이블 앞)와 전남축산단체협의회 개최장면

는 등 대책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남지역은 지자체의 협조 하에 많은 농가들이 차량 소독조를 설치하고 있으며,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농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나 방역이 허술한 농가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농장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양계업의 의무자조금 제도의 정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년에는 지회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1번씩 농협 하나로마트 양계산물코너 앞에서 POP홍보물 부착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양계산물 홍보활동을 펼쳐왔으며,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수시로 병원, 학교, 경찰서 구내식당 등을 돌면서 시식행사를 실시해 왔지만 자조금 활성화로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길 바랬다.

광주전남도지회는 김복남 채란분과위원장과 정종식 육계분과위원장이 주축이 돼서 각 분과를 이끌고 있으며, 지회 활성화를 꾀해가고 있다. 정 지회장은 회원들의 참여와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내년 3월중에 “일등 전남양계 선포식”을 개최해 새롭게 태어나는 양계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 지회장은 끝으로 양계업 발전을 위해 쿼터제를 통한 양계산업 안정화, 양계산물 유통구조개선, 배합사료 성분검사 실시, 분과위원회 활성화 등이 업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 협회나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였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